

겨울장마에 공사장 '휴~' 농작물 피해 농민도 한숨

광주·전남 11월 강수일 13일·강수량 90mm 평년 두배

자연재해 포함 안돼 보상길 막막

지난달 지속한 '가을 장마'의 후폭풍이 전남지역 농가와 건설업계를 덮쳤다.

시금치와 표고 버섯 등 노지 작물 재배농가는 작물이 썩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영세한 건설업체들은 잦은 비로 공사를 중단해 경영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피해 농가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자연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길조차 막막한 상황이다.

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광주·전남지역의 강수량은 90.6mm로 평년(47.3mm)의 2배에 달했고, 강수일수는 13.1일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기상청은 이달에도 평년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날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젖은 비' 농심 먹구름=7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지역에서 최근 잦은 비로 뿌리 썩음병이 발생해 시금치 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접수된 피해신고는 신안 전체 1570여농가 중 1100여농가, 규모는 전체 157ha 중 783ha에 이른다.

전남도는 간척지를 개간한 신안지역 시금치 재배지의 특성상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 흐린 날까지 많아 뿌리가 썩는 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순천·구례·광양지역에서는 곳곳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날까지 172농가가 전남도에 피해 신고를 했으며, 추정 피해액은 15억원에 달한다. 이들 농가들은 곳곳 짝지가 물러 빠지고 검은 곰팡이가 피는 피해를 입고 있다. 선풍기와 제습기 등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표고 버섯 주산지인 장흥에서는 748농가가 표고 버섯이 비에 젖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손해 피해를 입었다. 추정 피해액은 21억원 상당이다.

더 큰 문제는 피해 보상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시금치와 표고버섯 등 노지작물의 경우 보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낙과 피해와 달리 꽃감 등 농산물을 2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자연재해 인정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일용직 노동자·건설업체 몰상=하루걸러 내린 비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청객이나 마찬가지였다. 20년째 건설현장에서 일한 최모(54)씨는 "매년 11월이면 한 해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시기가 일감이 많은 편이었다"며 "올해는 비가 이틀에 한번 꼴로 내리면서 아예 공사를 중단하는 업체도 있어 허탕을 치는 날이 많았다"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에서 도색업체를 운영하는 서모(37)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도색 작업의 특성상 비가 오면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운영 자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공사를 진행해야만 공사대금을 청구해 자재 업체들에게 돈을 지급하는데, 공사가 막히니 당장 거래처 여러 곳에서 시달렸다"고 하소연했다.

잦은 비는 88고속도로 확장 개통 공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도로공사는 당초 11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비가 내리면서 마무리 작업인 차선 도색 작업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현재까지도 함양IC 인근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불 밝힌 성탄 트리
성탄절을 20여일 앞둔 7일 화순군 화순읍 교리 교차로 인근에 설치된 대형 성탄 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화순군기독교협의회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고 온누리에 희망의 메시지가 퍼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성탄 트리를 설치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산구 첨단 2동 주민센터 차 탄채 민원 원스톱 처리

광주에 전국 최초로 차에 탄 채 등본 등 민원서류를 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승차구매) 민원센터가 등장했다.

7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첨단 2동 주민센터에 신설된 '차 타고(Go) 민원보고(Go) 센터'가 오는 8일 개소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간다. 이 센터는 도심 주민센터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민하던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유대원(37·행정 6급) 주무관은 지난 9월 첨단 2동에 발령받은 뒤 주차 공간이 협소해 주민센터 주위를 두세 바퀴 돌았다는 민원인들의 호소와 민원인간 주차 시비, 경미한 접촉사고들을 매일같이 접했다고 한다.

주민센터 방문객이 일일 540여명에 달하는 반면 주차장은 16면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었으나 추가 주차공간 마련도 여의치 않았다. 동료와 해법을 찾던 유 주무관은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주민센터에도 활용하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과 함께 일을 추진했다.

첨단 2동 측은 최근 3개월간 업무를 분석한 결과, 민원인 90%가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단순 업무를 위해 주민센터를 찾고 있고 이들이 주차를 하고 업무를 마치는데 통상 15~30분 이상 걸렸다는 점도 '차 타고(Go) 민원보고(Go) 센터' 설치에 힘을 실어줬다.

첨단 2동 관계자는 "동료와 힘을 합쳐 접촉사고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주민센터 입구를 개설하고 차량 유도선, 충돌 방지 보호대 등을 설치했다"면서 "우리 것처럼 주차난을 겪는 다른 도심 주민센터들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고교배정방식 또 바뀐다

시 교육청 3가지 안 중 결정...일선 학교 혼란 우려

광주 고등학교 배정방식에 대한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거리의 관계없이 고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지원추첨배정(선지원) 방식을 폐지하는 방안을 비롯, 2018학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고교 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하지만 장항국 교육감이 공·사립 고교간 학력차를 없애겠다며 2013년 도입한 배정 방식을 다시 변경하면서 현장의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는 7일 오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교배정방식 개선을 위한 2차 공청회'에서 이르면 2018학년도부터 적용을 검토하는 3가지 고교배정방식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피아인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학생(중 3·고 1년 1070명)과 학부모(916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비롯, 중등교원(268명)에 대한 온라인조사에 일반시민(1000명)을 대상으로 ARS 설문 결과를 종합해 3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3가지는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100% 근거리 배정 ▲선지원 방식(40%→20%) 축소 ▲선지원 폐

지 및 현행 후배정 방식 유지 등으로 요약된다.

현행 거리와 관계없이 고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지원추첨배정(선지원)으로 정원의 40%를 선발하고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배정가능고교를 선택하는 후지원추첨배정(후지원)에서 60%를 뽑는 고교 배정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지역 간 밀집현상의 여파로 원거리 배정되거나 성적 우수생들의 쏠림현상에 따른 학교 간 성적 격차 발생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거리 배정이나 선지원 축소, 선지원 폐지 방식의 경우 자칫 강제 배정에 따른 후유증 뿐 아니라 선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성적균등 배정 방식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의견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견도 나온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내년 1월 중 시안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 공청회, 학부모 설명회를 거쳐 최종 배정 방식을 결정해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

생활쓰레기는 내 집(상가)앞에 배출합니다!

일반쓰레기 / 음식물쓰레기는 일~금요일 저녁에...
재활용품쓰레기는 지정 수거일 전날 저녁에...

재활용품 수거일	지역
월·목	월곡1동, 첨단2동, 운남동, 평동, 삼도동, 선운지구, 수완지구
화·금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2동, 첨단1동, 신가동, 신창동, 동곡동 [화] 임곡동 [금] 봉량동
수·토	송정1·2동, 도산동, 비아동, 하남2지구, 하남공단, 진곡산단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단지내 지정된 장소에 수시로 배출

대형 폐가전 제품 배출방법	단독주택 배출방법
소형 폐가전제품	동주민센터 내 수거전용함 선풍기, 청소기, 프린터, 전기밥솥, 가습기, 노트북, 믹서기, 전기히터 등 [문의] 해당동 주민센터
폐형광등	동 주민센터 수거 전용함 [문의] 해당동 주민센터
폐건전지 및 폐휴대폰	동 주민센터 수거 전용함 [문의] 해당동 주민센터
대형폐기물	가구, 목재류, 이불, 전기장판, 장난감, 화분 등 (수수료 별도) [문의] 953-0015(고속에너지)

! 사업장 폐기물 배출시 1일 평균 300kg이상은 처리업체와 별도 계약후 처리

문의 광산구시설관리공단 960-9914 | 광산구청 960-8465

광 산 구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8 | 해질 17:20 | 달돋이 04:07 | 달질 15:25

아침기온 영하권
대체로 맑지만 아침한때 안개가 끼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0/12	보성	맑음	-2/11
목포	맑음	2/11	순천	맑음	2/13
여수	맑음	6/12	영광	맑음	-2/12
나주	맑음	-3/12	진도	맑음	1/11
완도	맑음	2/11	전주	맑음	-1/11
구례	맑음	-2/12	군산	맑음	-1/10
강진	맑음	-1/11	남원	맑음	-3/11
해남	맑음	-2/12	흑산도	맑음	7/9
장성	맑음	-3/1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서부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동부	북~북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서부	북~북동	1.0~2.0	북동~동	1.0~2.0
남해동부	북~북동	1.0~2.0	북동~동	1.0~2.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12:17	05:10
여수	00:00	17:48
	07:24	00:43
	19:14	13:23

◇주간 날씨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	☁	☁	☀	☀	☀	☀
3/15	5/11	8/9	5/9	3/11	2/9	3/8

◇생활지수

- 관심: 체감온도
- 낮음: 동파
- 높음: 뇌졸중